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88호 [주제 제 25697호] 주체 106 (2017)년 7월 7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령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에게 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령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 단장이며 로씨야 령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올라지미르 이차코프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가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백두산 천출 위인들께 루단체에서 상장을 드리기로 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배부 미누델 스포르스카보르토회에서 상장을 수여해드리기로 결정하였다. 회장 카미르 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탄생 75돐이 뜻깊게 경축되는데 이어 8월에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류의 커다란 관심속에 2017년 백두산위인정승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국제적인 대회합을 계기로 우리는 주체 혁명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들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상장을 수여해 드릴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혁명성원들의 최대의 경의의 표시이다. 비록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위대한 수령을 모시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조선의 현실은 배부인민뿐 아니라 진보적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귀감이다. 우리 혁명은 위대한 조선을 일떠세우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리고 그분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김정은동지의 업적과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배부인민들에게 널리 소개전달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90(2001)년 5월 당의 토지정리구상이 빛나게 실현되어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최첨단하게 전변된 수원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지점으로 되는 강병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농촌혁명농장에는 이곳을 찾으면서 농업생산을 높이고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농장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신의주회화실용농장에 모신 모자이크벽화 《백두산에 오아리 줄기들》은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며 공장관리운영과 원료보장, 생산자들의 로동조건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장의 강화발전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철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탁월한 군사천재가이신 20대의 청년장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신룡지구 혁명전적지 백역신민영과 장광희의를 지도하신 뜻깊은 곳에 정중히 모시였다. 평명성제염소의 일군들과 농업원들은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소금밭건설을 끝은 기간에 관내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짐있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면, 강국면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애국충성을 다 바쳐갈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림있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공공사업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병진로선 따라 오늘의 민족사적인 대승리를 최후승리로 즐기치게 이어나가자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인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 진행

【평양 7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받들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쳐 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단방에 펼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 완전성공의 격동적인 초승은 천만민민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온 나라 강산에 최후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사회주의조선 만세의 환로를 꽃피어 리쳐올리고있다. 반만년민족사에 글문자로 아로새겨질 7월의 대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을 바치오신 혁명강화의 길에 온넉과 심혈을 다 바치시며 불같은 공격전으로 반이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강철의 탄력,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심이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경시대 앞으로!》라는 구호를 신념의 표로 내세우고 대륙간탄도로켓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하여 주체조선의 자주적공업과 영웅적인민의 강유한 기상을 단방에 펼치고 우리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하였다. 온 나라 관내의 인민은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핵강국, 로켓강국으로 전변시키시어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최후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의 원승불패성, 우리의 강위력한 힘에 대한 확신과 크나큰 자부심에 넘쳐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성공을 열렬히 축하하고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인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가 6일 현령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 당산기념탑, 4.25문화회관, 개신교,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대회장들은 새기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양태운 우리 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맞이한 끝없는 환희와 격정을 안고 모여온 수십만 군중들로 차넘치였다. 대회에는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김일성광장 대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관내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등의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말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또한 《우리 조국을 핵강국, 로켓강국으로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민족의 대경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후의 영광을 드림니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으로 되는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주체조선의 불멸의 국력!》,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의 2013년 3월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등의 구호들과 글말을, 신진화물이 새겨져있었으며 기말계양대들은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나뉘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발목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원장 장창하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조선



4 면으로 계속

